

지역 소식통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윤달기간 특별운영

서남권 추모공원이 윤달 기간에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별운영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윤달은 6월 24일 시작돼 7월 22일 끝난다. 보통 윤달에는 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장이 아니라 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개장 유골 화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신 화장과는 별개로 개장 유골 화장을 1일 20기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 4개 시·군민에 대해서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화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장로 부속 설비 교체와 점검 등을 마쳤다.

한편 개장 유골 화장 신청은 묘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 또는 정읍시청에서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chanul.go.kr)'을 통해 화장일 할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억6900만원 국비 예산 확보 취약계층 1135가구 대상

부안군이 가스사고 폭거노인은 물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1년부터 14억3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서민층 대상 6,792가구의 가스시설을 교체하였고 올해도 2017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69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 1,135가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LPG 가스 사고를 예방하려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빈민층인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안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국비확보에 노력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PG 고무호스는 오랫동안 밖에 두면 빗물이나 날씨 때문에 균열하거나 이음새가 헐거워지고 고의 절단 등으로 가스 누출 및 화재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비용부담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 사용 시설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 콕 등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대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20년

까지 LPG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실종자 찾아 가족에게 인계

정읍시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8일 길가리를 헤매는 실종자 김모씨를 무사히 가족에 인계했다.

시에 따르면 당일 오전 국민은행 뒤 중앙상가 공영 주차장에서 가족이 차를 주차하던 사이 김모씨가 행방불명됐다.

가족들은 11시 57분 정읍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로 CCTV를 이용한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상주 관제 요원과 경찰관은 실종자 인상착의를 파악 후 관할 구역 내 CCTV를 통해 실종자를 추적했다.

추적 끝에 주차장 입구를 나가서 기동 소공원에서 배회하다가 초산교와 코아루 아파트 방항으로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인근 순찰대에 수색을 요청했고 오후 4시 20분 경 실종자를



찾아 가족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시 관계자는 "실종자를 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인계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정읍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문을 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 10월까지 무성서원서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변산반도국립공IBK기업은행 자연나누리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BK기업은행과 함께 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자연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될 1차 프로그램은 부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참여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 자연을 탐방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도자기 만들기', '나만의 사진엽서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 할 계획이다.

4차에 걸쳐 진행될 변산반도 국립공원 자연나누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할 계획이며, 연령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할 예정이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윤지호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자연나누리 사업은 기업 후원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 하는 뜻깊은 생태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차별 없는 자연·문화 나누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가 무성서원(철보면 무성리, 사적 제166호)에서 다양한 인문학 강의와 풍류체험을 결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부(絃歌樓)의 풍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풍류(風流)와 도(道)를 논하다, '무성서원', 음악과 춤으로 만나다, '선비정신 학(學)에 기대다',

무성서원 예(禮)에서 놀다이다.

'풍류(風流)와 도(道)를 논하다'는 풍류도와 최치원을 주제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이다.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과 신용문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대금정악 이수자 이선수 전라장가진흥회 대표(가곡) 등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강연(공연)한다.

'무성서원 음악과 춤으로 만나다'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예능보유자 왕기석 명창이 '힐링 판소리 바람처럼 물처럼'을 주제로 판소리 한마당을 펼친다.

또 '선비정신 학(學)에 기대다'는 정가(正歌)와 서예 등 교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선수씨와 김부식(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씨가 지도한다.

'무성서원 예(禮)에서 놀다'에서는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답사하고 체험한다. 사자소화과 사자상이 배우기와 총과 예에 대한 탁본 해보기, 선비 예절 배우기와 무성서원 주변과 문화재를 답사하는 '선비의 길을 따라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체 일정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단체 또는 개인별로 무성서원 모현회 향교·서원 활용사업단(☎063-531-1022)에 신청(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올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고 폭염일수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17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군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폭염대응 전담 T/F팀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17년 여름철 기상전망 예측 △폭염 상향관리 T/F팀 구성 및 운영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과 관리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노약자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은 재난도우미 87명이 인부전하나 방문점검을 통해 세심히 관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냉방기기를 구비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 527곳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과일의 여왕 '체리' 첫 수확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양앵두(체리)가 재배되어 첫 수확의 기쁨을 얻었다.

박우정 군수, 조규철 군의원 지역내 농협조합장, 체리연구회원 등은 지난 10일 고창군 아산면 황금지농원(대표 윤병선)에서 체리수확을 체험하고 체리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대표적인 수입과일로 널리 알려져 온 체리는 국민소득 2만불 이상 되는 나라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선진국형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도 갈수록 그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체리는 기후적인 요인과 나무의 특성상 재배가 까다로워 지금까지는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고창에서 첫 체리가 생산됨으로서 앞으로 국내산 체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황금지농원 윤병선 대표는 "체리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성분과 항암물질인 케르티린을 함유하고 있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며 체리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평가회에 참석한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최적의 토양 및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 명품 농산물이 매우 풍부하다"며 "복분자와 수박, 멜론에 이어 체리가 또 하나의 고창을 대표하는 명품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체리 재배와 브랜드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14일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오는 14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일환으로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한다.

고당교실은 정읍지역 사망 원인 2위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증세와 운동과 식이요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14일에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강은주 영양팀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날 교육에서는 고혈압과 당뇨질환자의 식이요법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만성질환 식단을 체험해볼 수 있는 도시락 시식회도 열릴 예정이다.

고당교실은 해당 질환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정읍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539-609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음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거없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